

효원 도서관

Pusan National University Library Newsletter

도서관 소식지



사랑할 때 내면에서 소용돌이치면서 올라오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정면으로 끌어안을 수 있다면,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감정을 넘어서서 계속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무의식을 의식의 차원으로 통합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사랑이 한 사람을 아름답게, 자신감 있게, 성숙하게 만드는 이유 역시
 그 어려움을 이겨낸 성과일 것이다.

- 6월 이달의 책 『사람풍경』 (김형경, 사람풍경) 中 -



* 이 지면은 향후 도서관 발전기금을 출연한 개인이나 기관을 위한 광고란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광고협찬을 원하시는 분은 기획전산팀 담당자(051-510-1820)에게 문의 바랍니다.



똑똑, 문을 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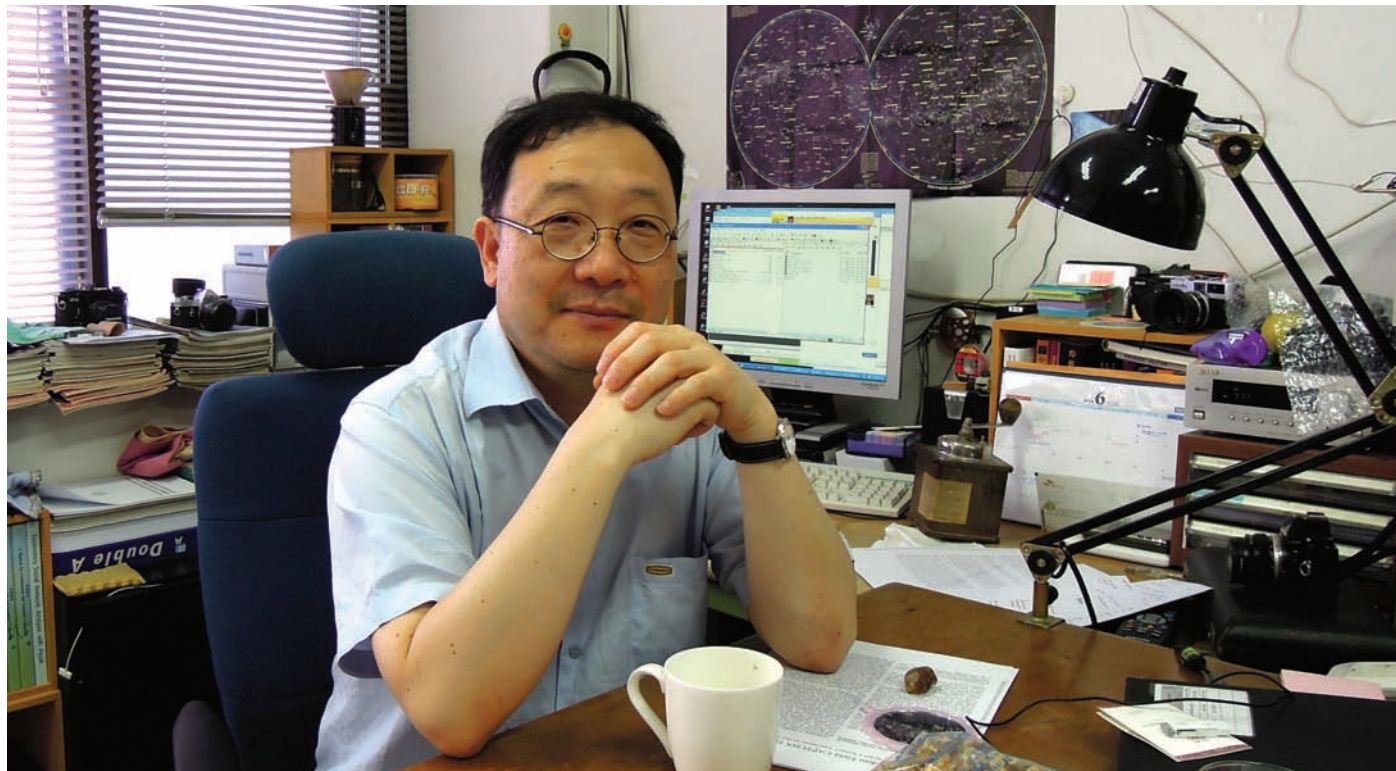
북카페 | 제1도서관 3층 |
자유롭고 편안하게 독서를 즐길 수 있는 북카페는 우리들의 쉼터이자 소통의 공간입니다

C O N T E N T S

- 04 칼럼 책에 관한 세 가지 이야기, 아주 개인적인
- 06 특집 나를 일깨우는 과학책 읽기
- 08 도서관, 길을 찾다 도서관에 없는 자료 100% 활용하기
- 10 도서관, 서가를 들여다보다 고전자료실, 귀중자료를 탐하다
- 12 도서관, 책을 이야기하다 나는 위로받고 싶지 않다
스무살, 그들이 선택한 책
- 14 시선집중
- 15 도서관 후원

발행처 부산대학교 도서관 발행인 이제환 발행일 2012. 6. 18.
주소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 051-510-1800 | <http://pulip.pusan.ac.kr>
편집 부산대학교 도서관 기획전산팀 | 051-510-1820 | library@pusan.ac.kr
디자인 디자인웍스 | 051-248-1513

〈Library Space〉가 〈효원도서관〉으로
2010년부터 발행되었던 〈Library Space〉가 부산대학교 도서관의 소식과 내용을 더욱더 알차게 전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효원도서관〉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함께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효원도서관〉이 되기 위해 앞으로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책에 관한 세 가지 이야기, 아주 개인적인

01 처음 읽은 책 이야기

나를 책갈이 생긴 것 중에서 처음으로 완독한 책은 보물섬이다. 국민학교 4학년 때 현미경을 끼워준다는 말에 혹해서 산 전집 10권 중에 보물섬이 있었다. 없는 집에서는 책이라고 할 만한 것을 구경도하기 힘들었던 1970년 초반의 일이다. 좀 있는 집에서는 <어깨동무>나 <새소년>같은 월간지를 구독했는데, 우리들은 그런 집에 놀러가서 그 책을 얻어 보는 것이 즐거움 중의 하나였다. 또는 동네 만화방 유리창에 빨래같이 널려있는 신간 만화의 표지를 보면서 모두들 침을 삼키곤 하였다. 오로지 끼워주는 사은품 현미경을 구할 욕심에 며칠간의 투쟁을 통해서 결국 그 전집과 현미경을 구할 수 있었다. 현미경 놀이가 심드렁해서 우연히 뽑아 읽기 시작한 보물섬은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다. 한번은 그 책을 들고 신작로를 걸으며 읽다가 길을 잘못 들어 발두렁에 빠진 기억이 난다. 철이 들어서 처음 완독한 책은 모 대학의 교양

과목용 <철학개론>이었다. 고등학교 일학년 때, 사춘기 남자아이들이 그러하듯이 친구들과 모여서 각자의 개똥철학으로 옥신각신 다투기도 하고 사변적 관념의 매력에 조금씩 빠져들었다. 그런데 집안에 굴러들어온 그 낡은 철학개론은 그야말로 머리가 뺨 뚫어줄 정도의 큰 충격을 주었다. 그동안 친구들이랑 떠들고 고민한 문제들이 이미 수백 년 전부터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미 다 고민되었고, 나를 정리가 되었다는 사실에 필자는 나의 개똥철학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한심한 것이었는가를 크게 뉘우치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은 공부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준 고마운 철학개론서. 역설적이게도 집에 읽을 것이라고는 그것밖에 없어서 정말 열심히 본 기억이 난다. 읽을 책이 많다는 것은 도리어 독서에 방해가 되기도 한다. 이런 기억때문인지 요즘 아이들에게 책 사주는 문제로 아내와 항상 다툰다. 나는 많은 책보다 귀한 책이 더 교육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나는 <교수대로부터의 리포트>를, 그 여인은 나에게 <하나님께 양갓음한 사나이>라는 책을 주었다. 따뜻한 유물론자와 선량한 신앙인이 되기를 서로 간절히 바라는 심정으로. 생각해보니 참으로 옛날이야기다. 지금도 나는 이 책을 2권이나 가지고 있다. 한 권은 마음이 쑥쑥 하면 경전삼아 읽어보기 위한 실사용이고, 다른 한권은 그야말로 관상용, 즉 보관용이다. 뭔가 마음이 세워지지 않을 때 이 책을 읽으면 용기와 희망이 생긴다. ”

02 가장 아끼는 책 이야기

필자가 가장 아끼는 책을 한편만 꼽으라고 한다면 나는 주저 없이 <교수대로부터의 리포트>를 선택한다. 이 책은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만나치 레지스탕스 활동을 한 율리우스 푸치크의 옥중 편지 묶음이다. 동료의 자백으로 체포된 1942년 4월 24일부터 처형당한 1943년 9월 8일까지의 기록으로 정리된 이 책은 140페이지 가량으로 매우 짧다. 그 투옥기간 내내 당한 고문의 고통 속에서도 그가 보여준 희망과 인간에 대한 신뢰는 무척 감동적이다. 공산당원이기도 한 그의 편지글에서 이념의 음습한 그림자는 전혀 없다. 이 책에는 몇 가지 사연이 있기도 하다. 청춘 시절 사귄 여인은 독실한 종교인이라, 세속에 대한 관점과 해결책이 나와 달라도 너무 달라, 중국에는 서로 볼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 마지막 장면에서 우리는 서로의 미래를 인도해줄 요량으로 마음에 드는 책을 교환하기로 했다. 나는 <교수대로부터의 리포트>를, 그 여인은 나에게 <하나님께 양갓음한 사나이>라는 책을 주었다. 따뜻한 유물론자와 선량한 신앙인이 되기를 서로 간절히 바라는 심정으로. 생각해보니 참으로 옛날이야기다. 지금도 나는 이 책을 2권이나 가지고 있다. 한 권은 마음이 쑥쑥 하면 경전삼아 읽어보기 위한 실사용이고, 다른 한권은 그야말로 관상용, 즉 보관용이다. 뭔가 마음이 세워지지 않을 때 이 책을 읽으면 용기와 희망이 생긴다. 감옥에서 짐승같이 고문당하면서도 희망을 꺾지 않은 율리우스 푸치크에 비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가를 새삼 느끼게 된다. 어떤 청소년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의 CD를 두 장 구입해서 하나는 듣기용으로 다른 하나는 경건하게 모셔둔다고 해서 웃었는데, 지금 와서 그 마음이 이해된다. 이 책을 더 아끼는 이유는 이미 절판이 되어 남들은 더 이상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책과 같이 낡 활자로 한 글자씩 푹푹 박아서 인쇄한 책을 손으로 만지면 묘한 감촉을 느낄 수 있다. 활자 인쇄본 책을 읽으면 그 생각이 종이에 하나하나 박혀있는 것 같다. 이에 비하면 요즘 책의 글자는 종이 위에 얇게 썩어져 있는 느낌이 들고 사실도 그렇다. 정전기로 유도된 토너 입자를 뜨거운 롤러가 녹여 붙여서 인쇄를 하기 때문이다. 인쇄방식을 내용과 엮는 것이 웃기는 일이지만, 여하간 얇게 발린 글씨의 책과 쑥쑥 박힌 글씨의 책은 다르게 다가온다.

03 절대 사지 않는 책

좋은 책을 사는 비결은 나쁜 책을 많이 사보면 저절로 배울 수 있지만 요즘의 책값 때문에 쉽지가 않다. 필자의 책 중에서 가장 싼 것은 250원짜리 삼중당 문고다. 장정일의 시에도 나오는 그 삼중당 문고. 옛날 책에는 그 말미에 <출판인의 맹세> 이런 것도 있다. 그것은 박정희, 전두환 시절 LP판 마지막에 나오는 건전가요, <여허야 둥기둥기>를 생각나게 한다. 그건 그렇고 나는 책 표지에 저자 얼굴이 크게 나오는 책은 절대 사지 않는다. 그런 책은 내용보다 저자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책이라 대부분 그 내용이 조악하기 이를 데 없다. 또 페이지 당 글자 수가 너무 적은 책도 사지 않는다. 요즘은 컴퓨터 조판 때문인지 구성(layout)이 엄청 다양하고 자유롭다. 그래서인지 쓸데없는 공백이 남발되고, 폰트도 바보스러울 정도로 큼직하다. 책은 일단 글씨가 뻑뻑해야지만 공격적으로 읽어볼 마음이 생긴다. 초등학교 교과서 글씨 크기로 채워진 요즘의 책은 그 내용도 모양만큼이나 느슨하여 물 탄 맥주를 마시는 느낌이 난다. 어떤 출판사는 페이지 늘이기 온갖 꼼수를 부린다. 책에도 패션이 있어야 하지만 패션이 비본질적 요소이다. 종이책은 커다랗게 다 자란 나무를 희생시켜서 만들기 때문에 그 희생에 내용과 밀도로 보답이 되어야 한다. 종이책에 많은 글씨를 채워 넣는 것이 바로 지구를 보호하는 일이기도 할 것이다.





나를 일깨우는 과학책 읽기

대학생을 위한 특색 있는 독서모임이 진행 중에 있다. 2012년 1학기부터 도서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나를 일깨우는 과학책 읽기: 전문가의 해설을 함께 듣는 책 읽기’ 프로그램이 바로 그것이다. 독서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활동을 책읽기 모임이라는 소통의 장으로 확장하여, 독서의 감동을 함께 나누고 더 깊이 이해하도록 구성하였다. 이번 학기에는 무엇보다 인문학 및 사회과학 등에 치중된 독서 영역을 확대하고자 과학 분야를 주제로 정한 것이 특징적이다. 우리 시대의 교양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과학은 비전공자들에게는 여전히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이다. 혼자서 과학책 읽기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책을 읽더라도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힘든 면이 있다. 그래서 과학을 더 쉽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책을 각자 읽은 후 해당 분야 교수진의 해설을 함께 듣는 ‘스스로 책읽기 + 전문가의 해설’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독서모임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독서모임은 5월 11일부터 6월 28일까지 격주로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제1도서관 신관 3층 북카페에서 열린다. 학생들은 2주에 1권씩 총 4회에 걸쳐 생물학, 화학, 천문학, 물리학 분야의 책을 읽고 토의한다. 학생들이 혼자 책읽기를 한 후, 독서모임을 통해 전문가로부터 책에 대한 해설과 해당 분야의 학문 추세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응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20명을 모집하는 공모가 나간 지 이틀 만에 모집이 마감될 정도로 시작부터 관심이 뜨거웠으며, 이후에도 꾸준히 신청이 들어와 27명까지 모집하였다. 시선을 끄는 점은 과학 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교수님 한 분이 독서모임 참여자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 첫 독서모임을 시작하기 전, 독서모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참여자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책을 읽고 모임에 참여하는 가이드라인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 프로그램 참여 가이드라인 |

1. 혼자 하기

- 구체적인 내용을 숙지하면서 맥락과 흐름을 생각하며 통독하기
-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메모하기
- 책의 주제를 생각하며 요약하기
- 이해가 되지 않거나 의문이 드는 점 등 질문할 내용 정리하기
-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 등 자유롭게 쓰기

2. 함께 하기

- 전문가의 해설을 듣고 정리하기
- 이해가 되지 않거나 의문이 들었던 점 등 질문하기
- 참여자들과 소통하기

5월 11일 금요일, 드디어 첫 독서모임이 열린 날.

이 날은 ‘생물학’을 주제로 한 『하리하리의 바이오 사이언스 : 유전과 생명공학』(이은희, 살림, 2009) 독서모임이 진행되었다. 이 책은 유전과 생명공학을 다룬 과학 에세이로 발명에서 비롯된 세포 발견과 멘델의 유전법칙에서부터 줄기세포와 유전자의 재조합까지 다양한 비밀을 담은 책이다.

생물학과 김정안 강사의 열성적인 해설과 함께 호기심 많은 참여자들의 질문이 끊임 없이 이어져 예상시간을 1시간이나 지나 마쳤고, 그 후에도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는 참여자가 있어 8시까지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상당히 진지하게 책을 읽고 모임에 참여하였으며, 강사도 근래보기 힘든 학생들의 열의를 보았다는 반응이다.

“저는 항상 과학 관련 기사를 이해하고 싶었어요. 과학 기사는 다른 기사들 보다 굉장히 흥미로워 보이면서도 도대체 어디서부터 건드려야 이 기사를 이해할 수 있을지 감이 안 잡혔거든요. 제가 읽어볼 수 있는 과학책을 찾는 것도 힘들었고, 혼자서 읽어서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 점에서 제가 이번 독서모임에 참가하게 된 일은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이번 독서모임은 각 모임마다 전문가 분들이 오셔서 책 내용에 대해 정말 맛깔나게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한 의문도 풀렸어요. 막 던진 우문에 현답을 알아서 척척 해주시고요. 과학도, 인문학도 할 것 없이 다양하게 모인 학생들과의 대화와 토론도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재미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남은 모임도 정말 기대 되고, 이런 기회를 더 많은 부산대 학우들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철학과 3 심어진)

저는 예전부터 제가 전공하는 생명과학에 대해 정말 재미를 느끼면서 열정적으로 연구하고, 이걸 다른 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었어요. 마침 이번 프로그램의 해설을 맡게 되어 매우 기쁜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참여자 분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책을 읽어 오셨고, 적극적으로 제 설명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다만, 두 시간이라는 짧은 시간과 스무 명 정도의 인원 제한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다음 기회에 더 긴 시간이 주어진다면, 보다 많은 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생명과학의 여러 주제들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어요. 이번 강연의 목표가 이 책과 해설을 통해 주변의 생명과학 관련 이슈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는 것이었는데, 어느 정도 달성된 것 같아 기쁩니다. 과학, 특히 생명과학은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해하려는 그 노력과 전공자의 설명이 곁들여진다면 정말 흥미롭게 다가 갈 거라 생각합니다.

(생명과학과 김정안)

‘나를 일깨우는 과학책 읽기’ 독서모임은 1학기에 생물학, 화학, 천문학, 물리학에 대한 독서와 해설이 진행되며, 물리학 분야 독서와 독서모임은 일정상 기말 고사를 마친 후 6월말에 실시될 예정이다. 2012년 2학기에도 해설을 함께 듣는 독서모임을 계속 진행해나갈 계획이며, 사회과학, 인문학 등 다양한 주제를 검토 중이다. 도서관에서는 ‘스스로 책읽기 + 전문가의 해설’이라는 형식 외에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싶어 하는 수준 높은 독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독서모임을 함께하는 사람과 책



① 생물학 5/11(금) 16:00-18:00 생명과학과 김정안
하리하리의 바이오 사이언스 : 유전과 생명공학
이은희 지음 | 살림 | 2009 | 271 p.

② 화학 5/25(금) 16:00-18:00 화학과 배명남
화학 혁명과 플링
툼 헤이거 지음 | 고문주 옮김 | 바다출판사 | 2003 | 213 p.

③ 천문학 6/8(금) 16:00-18:00 지구과학교육과 안홍배
위대한 설계
스티븐 호킹, 레오나르드 몰로디노프 지음 | 전대호 옮김 | 까치글방 | 2010 | 252 p.

④ 물리학 6/28(목) 16:00-18:00 물리교육과 김상욱
대통령을 위한 물리학
리처드 물러 지음 | 장중훈 옮김 | 살림 | 2011 | 447 p.

도서관에 없는 자료 100% 활용하기



한석사 : 이번에 논문을 쓰려고 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우리도서관에는 없던 말이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도팀장 : 요즘 회원인들이 즐겨본다는 그 책 말이야. 도서관에서 '6월 이달의 책'으로 선정했다는 그 책. 직원들 사이에서 인기여서 나도 읽어보려고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검색해봤더니 이런, 제1도서관에 있는 책은 모두 대출중이더군. 앗! 다행히 밀양캠퍼스에 있는 책은 아직 빌릴 수 있어. 근데 밀양까지 직접 가기에는 너무 멀고, 그 사이에 누가 빌려 가면 어쩌지?

나신입 : 야호! 이제 곧 여름방학이야. 당분간 차취방은 비우고, 창원 고향집에 며칠 다녀와야겠어. 방학 때 꼭 보고 싶은 책이 있었는데, 글썄 창원대 도서관에 그 책이 있다는 거야. 우리 집 바로 앞에 있는 창원대 도서관……. 거기 있는 책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사사 : 여러분, 모두 걱정하지마세요. 우리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용하면, 편리하게 원하는 자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도서관에 원하는 자료가 없을 때는 어떻게 이용하는지 알아볼까요?

문헌복사(Document Delivery Service) · 상호대차(Interlibrary Loan)

우리도서관에 소장하고 있지 않은 자료를 국내 · 외 다른 소장기관에 복사 및 대출을 의뢰하여 받아보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대상 |
부산대학교 교직원 및 재학생(학부/대학원생)

- | 신청방법 |**
- KERIS(한국교육학술정보원 www.riiss.kr) 자료 복사 및 대출 신청
 - ① 이용자 직접신청
 - 우리대학 소속 이용자로써 KERIS에 회원가입 후 이용 가능
 - KERIS의 '전국대학소장자료종합목록'을 검색하고 소장처 확인 후, 자료복사 및 대출 신청
 - ※ 회원가입 후 담당자 승인 후 서비스 이용 가능 (회원가입 시 부가항목의 '소속'란에 부산대학교로 입력)
 - ② 도서관 담당자 대행 신청
 - KERIS의 '전국대학소장자료종합목록'에서 검색이 되지 않는 경우, 도서관 홈페이지 '도서관서비스'의 '타기관자료이용' 메뉴와 담당자 e-Mail(ill@library.pusan.ac.kr)로 신청

- 해외 소장기관 자료 대출 신청
 - 국내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지 않은 자료를 대영도서관(British Library), 일본국립국회도서관을 통해 대출받는 서비스
 - 도서관 홈페이지 '도서관서비스'의 '타기관자료이용' 메뉴와 담당자 e-Mail(ill@library.pusan.ac.kr)로 신청

- | 자료수령 |**
- 신청자료가 도착하면 신청자에게 메일과 휴대폰 SMS로 연락
 - 제1도서관 iCOMMONS 내 '타기관자료이용' 코너를 직접 방문하여 자료 수령
 - 자료 수령은 평일 18시까지 가능, 토/일/공휴일은 불가
 - ※ 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복사/대출+우송료)은 이용자 부담이며, 비용과 소요기간은 자료 유형이나 자료의 소장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음

| 문 의 |
제1도서관 1층 iCOMMONS 내 타기관자료이용 코너 051-510-1815

캠퍼스간자료대출

우리도서관에서는 부산캠퍼스, 아미캠퍼스, 양산캠퍼스, 밀양캠퍼스를 대상으로, 각 캠퍼스 소장 자료를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캠퍼스간자료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속캠퍼스에 없는 자료이거나 모두 대출 중인 경우 '캠퍼스간자료대출'을 이용하세요.

- | 이용방법 |**
- ① 도서관 홈페이지 (<http://pulip.pusan.ac.kr>) 로그인 후 서비스 이용
 - ※ MY LIBRARY > 개인정보관리에서 연락처, 이메일 반드시 입력

- ② 소장자료검색 통해 도서 대출정보 확인 (소장자료검색 ▶ 간략화면 ▶ 소장 도서관명 클릭 ▶ 소장정보 보기 ▶ 도서상태 또는 소장자료검색 ▶ 간략화면 ▶ 도서명클릭 ▶ 소장정보 ▶ 도서상태)



- ③ 소장정보의 부가기능에 있는 **캠** 버튼 클릭 후 캠퍼스간자료대출 신청



- ④ 자료 수령도서관 선택 후 신청 완료



- | 자료대출 |**
- 접수 후 대출까지 소요기간은 2일 (단, 화 · 금요일 13:00 이후 신청자료는 3~4일 소요)
 - 대출가능 연락(메일 및 휴대폰 SMS)을 받으면 캠퍼스간자료대출 신청 당시 선택한 자료인수 도서관에서 자료대출

| 진행절차 |
신청 ▶ 접수 ▶ 이동 ▶ 도착 ▶ 대출

- | 유의사항 |**
- 소속캠퍼스 도서관에 없는 자료이거나 모두 대출 중인 경우 이용
 - 도서도착 안내(연락) 후 3일이 지난 도서는 대출 취소됨
 - 3회 이상 대출 취소 시 1학기동안 캠퍼스간 자료대출 이용불가

| 문 의 |
제1도서관 1층 대출열람팀 051-510-1308

부산시민도서관 자료이용

부산대학교도서관과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간 정보이용과 상호협력에 관한 협약을 통해 시민도서관의 자료를 우리도서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대상 |
부산대학교 교직원 및 재학생(학부/대학원생)

- | 이용절차 |**
- 시민도서관 홈페이지(<http://www.siminlib.go.kr/>)에서 자료검색 ▶ 대출하고자 하는 자료를 제1도서관 1층 대출열람팀을 방문하여 신청 ▶ 대출열람 담당자가 시민도서관에 자료대출 신청 ▶ 시민도서관 순회차량이 자료 배달 ▶ 신청자 통보 및 대출 ▶ 이용 후 대출자가 제1도서관 대출열람팀을 방문하여 반납

| 대출 책 수 및 기간 |
1인당 5책(전체 대출 상한 책 수 100책) 14일간

| 문 의 |
제1도서관 1층 대출열람팀 051-510-1800

부산경남국립대학교도서관 자료이용

가까이 있는 국립대학교도서관을 우리도서관처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산경남지역국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소속 도서관의 소장자료를 이용자가 직접 방문하여 대출할 수 있습니다.

- | 협의회 도서관 |**
- 부산대학교도서관
 - 경남과학기술대학교도서관 (구. 진주산업대학교도서관)
 - 경상대학교도서관
 - 부경대학교도서관
 - 부산교육대학교도서관
 - 창원대학교도서관
 - 한국해양대학교도서관

| 서비스 이용대상 |
부산대학교 교직원 및 재학생(학부/대학원생)

| 대출대상자료 |
대출가능 자료로 지정된 모든 자료

- | 이용절차 |**
- 우리도서관에서 제1도서관 1층 대출/반납데스크에서 '기관이용증' 수령(신분 확인) 방문도서관에서 자료를 소장한 도서관 직접 방문 ▶ 서가에서 자료 찾기 ▶ 대출/반납 데스크에서 '기관이용증'을 제시하고 자료 대출 ▶ 이용 후 직접 대출받은 도서관을 방문하여 반납

| 대출 책 수 및 기간 | 3책 10일간(연장 불가)
※ 연체, 분실, 훼손에 대한 책임은 대출자에게 있으며, 배상 및 변상은 자료를 대출한 도서관의 규정에 따름

- | 문 의 |**
- 부산대학교도서관 051-510-1308
 - 경남과학기술대학교도서관 055-751-5103~4 (구. 진주산업대학교도서관)
 - 경상대학교도서관 055-751-5103~4
 - 부경대학교도서관 051-629-6722~4
 - 부산교육대학교도서관 051-500-7156
 - 창원대학교도서관 055-213-2413
 - 한국해양대학교도서관 051-410-4077



보물 「목장지도」부터
조선시대 농서 「농가집성」까지

“고전자료실, 귀중자료를 탐하다”

330여년 전, 조선시대 전국의 목장을 담은 보물 지도가 궁금하다면?
조선후기 이양법 보급에 공헌한 농서를 직접 살펴보고 싶다면?
우리 도서관 고전자료실을 들여다보자.

우리학교 제1도서관 3층에 위치한 고전자료실은 영남지방의 각
문중 및 개인이 기증한 고문헌들을 다수 소장하고 있어 영남지방
의 지역사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고서와 고문서
약3만여 점과 7,400롤의 마이크로필름을 소장하고 있으며, 2008
년 12월에 보물로 지정된 목장지도를 포함해 귀중자료도 9종이
있다. 이 귀중자료는 도서관 전문자료위원회에서 선정한 자료들
로서 그 중에는 전래되는 수가 아주 드문 진귀한 책과 오직 하나
뿐인 유일본도 있다.

고서는 그저 오래된 옛날 책이 아니라 선조들의 역사와 정신이
담긴 소중한 문화유산이자, 앞으로도 길이 보존하고 전승해야 할
우리의 중요한 자산임을 기억하며……. 선인들의 우주관과 세계관
을 찾아 옛 지도 위를 함께 걸어보고, 고서에 스민 옛 사람들의 자취
를 더듬어보며, 책의 의미도 함께 되새겨 보자.

귀중자료 9종 펼쳐보기



목장지도(牧場地圖)
보물 제1595-2호(2008.12.22. 지정)



1678년 허목(許穆)이 편찬한 것으로 당시 전국의 목장을 그린 지도이다. 목장지도는
조선 전기에도 만들어졌으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산실(散佚)되었다. 그
동안 목장의 변동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효종의 북벌계획으로 마정(馬政)의 새로운 개
혁이 필요함에 따라 만들어진 지도이다. 1권 42면으로 구성된 이 지도첩은 모두 3장
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장에는 진헌마정색도(進獻馬正色圖), 두 번째 장에는 도군별
목장상황을 담은 회화식 지도, 세 번째 장에는 이 지도첩의 제작동기와 시기를 알려
주는 허목(許穆)의 기문(記文)이 실려 있다. 목장지도는 당시의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
인 말에 관한 마정과 목장에 관한 시책을 알 수 있는 자료로 역사적 가치가 높음은 물론
채색 필사본으로서 회화사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부산대학교 도서관과 국립중앙
도서관에 2점이 소장되어 있으며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표제는 부산대 소장본의
경우 「정색도(正色圖)」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의 경우 「목장지도」로 되어 있다.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



1861년(철종12) 김정호가 제작한 분첩절첩식(分帖折疊式) 우리나라 전국지도이다.
가채(加彩) 목판본으로 제작되었으며, 부산대학교를 비롯하여 서울대학교 규장각,
국립중앙도서관, 성신여대 박물관, 영남대 박물관 등에 약 25본이 소장되어 있다.
부산대학교 소장본의 표제는 「대동도」로 되어 있다.
한반도를 북에서 남까지 동서로 끊어 22첩으로 나누어 담았으며 매 도엽마다 가로
80리, 세로 100리의 방안을 이용하여 만들었다. 전장을 맞추면 조선전도가 되어
크기는 가로 3.8미터, 세로 6.7미터에 달한다.
『대동여지도』는 목판본으로 지도표(地圖標)를 써서 지도의 주기내용을 간결화하여
고지도를 근대화시켰으며, 다른 어느 고지도보다 주기내용이 많아 풍부한 정보량을
담고 있다. 분합(分合)이 자유로운 22첩으로, 각 첩의 크기가 책만하여 휴대하고
다니기도 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대동여지도』는 위치의 설정에 있어서 중강진(中江鎭)
부근이 북쪽으로 약간 치우쳐 있고, 울릉도가 남쪽으로 내려온 것을 제외하면 오늘
날의 지도에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정확하며,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가장 정확하고 정밀
한 최대의 과학적 실측지도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천하국도(天下國圖)

조선후기에 일반국민들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
도록 보급된 지도책 중 하나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지각적(知覺的)인 지리(地理)를 추상
화한 지도이다.



요람집(要覽集)

조선후기 목판인쇄술의 발달로 일반국민들이 편
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한 휴대용 지도책
중 하나로 천하총도(天下總圖), 중국도(中國圖),
팔도분도(八道分圖)로 구성되어 있다.



농가집성(農歌集成)

조선중기의 문신인 신숙이 편술한 농서로 농사직설
(農事直說), 금양잡록(衿陽雜錄), 사시찬요초
(四時纂要抄), 구황촬요(救荒撮要)로 이루어져 있다.



영규율수(瀛奎律髓)

원대(元代)에 방회(方回)가 당·송대 385가의
5·7언 율시 3천여수를 내용과 제재(題材)에 따라
49개의 류(類)로 나누어 엮은 시선집(詩選集)이다.



훈몽자회(訓蒙字會)

조선후기에 최세진이 어린이들의 한자 학습을
위하여 지은 책으로 한자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책이다. 한자를 표제자로 하여 그에 대한
음과 의미를 기술하고 있다.



군언수간(群彦手簡)

창고 정인탁(蒼阜 鄭仁卓: 1868~1953) 선생이
받은 편지 모음으로 당시의 독특한 편지 양식과
무늬 등을 볼 수 있다.



교남교육회잡지(嶠南教育會雜誌) 9호

1910년 교남교육회에서 간행한 기관지로 9호는
소재가 불분명했으나 부산대학교에서 유일본을
소장하고 있다.



고문헌을 보고싶다면

자료검색 소장자료의 서지정보와 원문정보는 '도서관 홈페이지
(<http://pulip.pusan.ac.kr>) > 소장자료 검색 > 고문헌 검색' 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료열람 및 이용

고문헌 자료는 원본 보존을 위해 폐가제로 운영하며, 대출을 금지하고
고전자료실 내 열람만 가능합니다.(부분복사 허용)

이용시간 평일 09:00~18:00,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휴실

고문헌 수집안내

대대로 전해져오는 집안의 고서, 고문서 등을 온전히 보존하고 연구
자료로 널리 활용시키고자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부산대학교 고전
자료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51-510-1824

부산대학교 도서관에서는 매월 좋은 책 한 권을 교내 모든 회원인들과 함께 읽는 '이달의 책'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2012년 4월 '이달의 책' 우수독후감에 당선된 수상작을 소개합니다. 원본은 부산대학교 '책 읽는 대학 홈페이지(http://reading.pusan.ac.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철학이 필요한 시간 강신주의 인문학 카운슬링

강신주 | 사계절 | 2011 | 346 p.



나는 위로받고 싶지 않다

이유지 (국어교육과 3)

때로 정신없이 삶의 레이스에 합류해 뛰다보면 어느 순간 '결승선이라는 게 어디 있지?'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고, 지독한 아픔에 몸서리치며 상처를 어찌해야 할 지 몰라 비명을 지르게 되는 순간을 만나기도 한다. 누구에게나 아픔은 있다. 대체 이 거추장스러운 것을 어찌해야 할 지 몰라 소리 없이 울고만 있거나 우는 얼굴 위로 또 다른 가면을 덧씌우는 일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 모든 상처에는 빛이 숨어있기 마련이다. 상처를 끓여터지게 남겨둘 것인지, 아름다운 재생의 빛으로 다시 태어나게 할 것인지는 온전히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다. 강신주의 <철학이 필요한 시간>은 그 모두에게 필요한 책이다. 인문학, 그들은 결코 나를 위로하지 않는다. 시시콜콜 잔소리 하며 인간을 다 아는 듯 이야기하고 맞는 말을 할 때는 그렇게 알뜰다가도 결국 마지막 순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큰 품으로 세상을 끌어안으며 치유해주는 것이다. 수세기 전 사람이 내게 보내는 '유리병 편지'. 험난한 세월의 바다를 건너온 연서가 가져다주는, 고통스럽지만 숨은 감미로움을 지닌 말들. 나는 위로받고 싶지 않다. 이것이 내가 철학을 찾는 이유이다.

<철학이 필요한 시간>에는 48명의 동서양의 철학자가 등장하여 앞 다투어 이리쿵저리쿵 지금의 우리를 놓고 이야기한다. 어떻게 우리보다 훨씬 오래전 살았던 그들이 현대의 우리에게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것은 그들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내가 지금 치열하게 하는 생각들을 그들 역시 보다 젊었을 때 함께하며 나처럼 괴로워했던 것이다. 존재함으로 인해 같은 문제로 괴로워했고 세상과 인간에 대한 수많은

배반을 겪으면서도 포기 않고 이해하려 노력했던 그 자체가 깊은 울림을 주었다. 사실 우리는 그저 어느 장난기 많은 절대자에 의해 이 무질서 속에 던져진 것뿐일지도 모르지만 말이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고 명확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계속되는 기술의 진보와 욕망의 이상평창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쟁들은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허무주의로 밀어 넣는다. 허나, 우리는 인간이 아닌가? 그럼에도 끊임없이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 알 수 없는 그 곳을 향해 마지막 순간까지 불멸의 손을 뻗는 인간. 이 눈물 나는 본능이 인간의 가장 기특한 점 아닐까? 확실히 현대는 철학이 길을 잃은 시대다. 책 속에서도 끊임없이 언급되듯 '인문학의 위기'라고 해도 과연 아니며 이는 곧 '현실의 위기'와도 맞닿아있다. 상처를 건드리면 당연히 따갑고 아프다. 하지만 치료를 위해서는 아파도 참고 이겨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당신을 위해 메스를 든 사내가 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을 치유할 시간이다. 아프다면 울음을 터트리고 비명을 질러도 좋다.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는 것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어서기 위한 과정임을 그대가 느낄 수 있을.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는 듯 하지만 인간은 크게 변하지 않는 듯하다. 천 년 전의 사람들이나 현대의 철학자들이나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말이다.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이 공간은 과도기를 겪고 있다. 그 혼란 속에 던져진 우리는 방황하며 외로워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순간에도 마음을 담아 끊임없이 유리병 편지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 상처는 치유의 빛을 가진다. 그들을 만나야 한다. 지금은 <철학이 필요한 시간>이다.

스무 살, 그들이 선택한 책

- 2012년 신입생이 많이 읽은 책 분야별 BEST 10선 * -

스무 살에 내가 처음 만난 책은?

'대학'이라는 새로운 세상에 이제 막 첫 발을 내딛은 스무 살의 회원인. 그들은 과연 어떤 책을 읽고 있을까요?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책'을 통해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며, 소통하는 즐거운 변화를 꿈꾸며..... 스무 살, 그들이 선택한 바로 그 책! '2012년 신입생이 많이 읽은 책 분야별 베스트 10'을 소개합니다.



아름다운 지상의 책 한권
이광주 지음 | 한길아트 | 2001 | 344 p.

총류
분류번호 000~

중세 유럽의 사본문화로 꽃핀 책의 출발부터 20세기 초 서적 제작의 명장 윌리엄 모리스에 이르기까지 '아름다운 책'의 역사와 이를 둘러싼 이야기를 에세이 형식으로 담고 있다.



생각의 탄생
로버트 루트벤스타인, 미셸 루트벤스타인 지음 | 박종성 옮김 | 에코의서재 | 2007 | 455 p.

철학
분류번호 100~

다빈치에서 파인먼까지 역사 속에서 가장 창조적이었던 사람들이 사용한 13가지 발상법을 생각의 단계별로 정리한 책. 그들의 창작 경험을 통해 '생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으며, 생각하는 법을 어떻게 배웠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NOW : 행성의 미래를 상상하는 사람들에게
에크하르트 톨레 지음 | 류시화 옮김 | 조화로운삶 | 2008 | 368 p.

종교
분류번호 200~

떠오르는 영적 교사 에크하르트 톨레의 더 나은 삶, 더 나은 세계를 위한 지침서. 현재의 자아로부터 벗어나 우리가 진실로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자유롭게 숨 쉬며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준다.



많아지면 달라진다
클레이 셔키 지음 | 이충호 옮김 | 갤리온 | 2011 | 311 p.

사회과학
분류번호 300~

사회변화를 예측하기 위해 새로운 개념을 제시한 책.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연결된 시민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1조 시간'. 이 '인지 잉여(cognitive surplus)' 자원을 통해 사회와 일상이 얼마나 변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평먹고 알먹는 독일어 첫걸음
박진권 지음 | 문예임 | 2008 | 220 p.

어학
분류번호 400~

독일어와 한글을 비교해가며 기초적인 표현들을 익히도록 한 안내서. 텍스트, 단어, 문법, 표현 익히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적인 문법을 간략하면서도 쉽게 연습하도록 되어있다.



링크 : 21세기를 지배하는 네트워크 과학
A. L. 바바라시 지음 | 강병남, 김기훈 옮김 | 동아사이 | 2002 | 423 p.

자연과학
분류번호 500~

네트워크에 대하여 새롭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책. 네트워크들이 어떻게 생겨나며, 어떤 모양으로 생겨 있고, 어떻게 진화하는가를 다루고 있다.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올리버 색스 지음 | 조석현 옮김 | 이마고 | 2006 | 444 p.

응용과학
분류번호 600~

시각인식 불능증, 음색인식 불능증, 역행성 기억상실증, 투렛증후군 등 기이한 신경장애를 겪고 있는 환자들의 이야기를 신경학자의 전문적 식견과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낸 책이다.



건축 콘서트 : 건축으로 통하는 12가지 즐거운 상상
이영수 등 지음 | 효형 | 2010 | 332 p.

예술
분류번호 700~

건축계에 몸담은 12명의 저자가 저마다 건축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거리를 들려주는 책. 건축이 무엇인지, 건축에 대해 깊이 알려면 어떤 요소에 주목해 접근해야 하는지 쉽고 재미있게 그 길을 제시한다.



1Q84 1
무라카미 하루키 지음 | 양윤옥 옮김 | 문학동네 | 2009 | 650 p.

문학
분류번호 800~

무라카미 하루키의 장편소설. 스타일리시한 여자 암살자 아오마메, 천재적인 문학성을 가진 소녀 후카에리, 기묘한 사건에 휘말리는 작가지망생 덴고, 아오마메와 덴고 두 남녀의 이련한 사랑이야기와 동시에 '1Q84'를 헤쳐 나가며 겪게 되는 환상적인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사기열전
사마천 지음 | 서해문집 | 2006 | 465 p.

역사
분류번호 900~

중국 한나라 때 역사학자 사마천이 기전체로 쓴 최초의 역사서 <사기열전> 중에서도 현대인들이 읽어볼만한 부분만을 뽑아 번역한 책. 당대 시대상을 알 수 있도록 각종유물 자료와 지도 등을 풍부하게 수록하고 있다.

* 2012년 3월부터 5월까지 신입생(2012학번, 20세) 대출순위 집계로, 듀이십진분류법(DDC)에 따라 주제별로 살펴보았으며, 대출순위 상위권 도서 중 전공교재는 통계에서 제외하였다.

2012년 도서관과 함께하는 저자와의 만남, 그 두 번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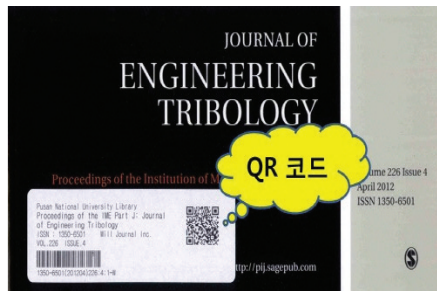
도서관과 함께하는 '저자와의 만남' 행사가 학내 구성원, 지역주민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6월 4일 제1도서관 1층 로비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철학, 영화를 캐스팅하다』(효형출판, 2005)의 저자 이왕주(윤리교육과) 교수가 초청되었다. 이왕주 교수는 '철학으로 영화보기, 영화로 철학하기'란 주제로 <동사서독>에서 <친절한 금자씨>에 이르는 29편의 글을 통해 존재론과 인식론, 윤리론을 거쳐 행복론까지 살아있는 언어로 풀어내며, 영화 속에 나타나는 삶에 대한 성찰과 행복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지난 5월, 『조선청년 안토니오 코레아, 루벤스를 만나다』의 저자 곽차섭(사학과) 교수와의 만남을 시작으로 도서관에서는 앞으로도 저자와 독자가 함께 공감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문의 | 제1도서관 참고봉사팀 051-510-1862

QR코드를 이용한 학술지 검색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학술지를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 도서관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자



가 증가함에 따라 QR코드를 이용한 학술지 검색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학술지 표지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학술지의 상세정보와 소장정보, 최근 입수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원문을 제공하는 자료일 경우에는 원문보기도 가능하다. 새롭게 입수되는 신간 서양학술지에 한해 서비스가 제공되며, 추후 국내 및 동양학술지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문의 | 제1도서관 과학기술팀·인문사회팀
051-510-1813·1306

도서관 온라인 이용교육 안내

도서관에서는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자유롭게 도서관 이용 방법을 학습할 수 있는 '온라인 이용교육'을 개설하였다. '온라인 이용교육'은 이용자들이 도서관을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동영상 및 플래시로 구성된 디지털컨텐츠이다.

도서관 이용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도서관 위치 안내부터 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중심으로 홈페이지 활용법과 리포트 작성법 등을 수록하고 있다. 도서관 홈페이지 (<http://pulip.pusan.ac.kr>) 접속 후 메인화면에 있는 '온라인 이용교육'을 선택하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총 40분 정도 소요), 필요에 따라 원하는 부분만 선택하여 학습할 수도 있다.

문의 | 제1도서관 참고봉사팀 051-510-1863



Special Focus

故박종근 박사 1만여 책 기증

지난 3월 14일,故박종근 박사의 뜻에 따라 최영석 회장(재일동포 사업가, (주)CYS 설립)이 도서 1만여 책을 도서관에 기증하였다.故박종근 박사(1929~2011)는 경남 창원(舊 마산) 출생으로, 동경교육대학(現 츠크바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하고, 구마모토 상과대 역사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조선근대역사 사료수집과 연구에 평생을 바친 재일동포역사학자이다. 이번 기증자료에는 『근대한미교섭사』와 같은 국내서뿐만 아니라 『日淸戰爭と朝鮮』, 『日韓外交資料集成』 등 다수의 일본서를 비롯하여 한일 역사 관련 귀중본들이 포함되어 있다. 기증의뢰인 최영석 회장은 기증자료의 등록·정리작업을 위한 경비 2천만 원을 도서관 발전기금으로 출연하였다. 도서관은 박종근 박사의 귀중한 개인자료를 신속히 선별·등록·정리하여 제1도서관 2층에 박종근 박사 개인문고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문의 | 제1도서관 자료개발팀 051-510-7600

도서관 타관반납서비스 실시

- 대출도서 어느 도서관에서나 반납 가능

도서관에서는 자료를 대출한 도서관으로만 반납해야 하던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5월 1일부터 '타관반납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타관반납서비스'란 자료를 대출한 도서관과 관계없이 어느 도서관에서나 대출한 도서를 반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타관자료를 반납할 때는 자동반납기대신 제1도서관, 제2도서관, 분관의 반납데스크에서 직접 반납을 하면 된다. 단, 예약도서, 지정도서, 팔림자료가 있는 도서, '캠퍼스간자료대출' 도서는 타관반납서비스에서 제외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한편, 도서관에서는 이용자의 접근성 및 이용률을 고려해 건설관 3층 미래열람실(제2열람실 앞)에도 자동반납기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예약도서와 지정도서 등 일부자료를 제외하고는 자동반납기를 활용하여 편리하게 자료를 반납할 수 있게 되었다. 도서관은 앞으로도 원활한 자료이용과 이용자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제1도서관 대출열람팀 051-510-1800

도서관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PNU 도서관친구들”

프로젝트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부산대학교 도서관에서는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도서관을 만들어가기 위해 “PNU 도서관친구들”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PNU 도서관친구들” 프로젝트는 도서관과 친구가 되어 다양한 방법으로 도서관 운영과 활동을 지원하는 캠페인입니다.

여러분이 “PNU 도서관친구들”이 되어 도서관을 도서관답게 만드는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세요.

“PNU 도서관친구들”은 도서관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3가지 활동을 중심으로 함께 도서관 발전을 꿈꾸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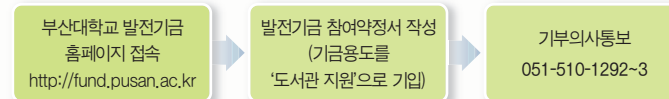
첫째, 도서관 발전을 위한 후원금

만원의 행복

만원으로 여러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2006년 12월 도서관 사서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시작된 '만원의 행복' 모금운동. 당신이 기부한 만원은 책 한권의 가치를 넘어 효원인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도서관 발전기금

도서관에 대한 투자는 효원의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2001년 (주)중앙실업 김종갑 대표를 비롯하여 2012년 재일동포 최영석 회장까지 그동안 많은 분들이 도서관 발전을 위한 지원금을 출연하였습니다. 효원인의 이상과 진리를, 학문의 열망을 도서관에서 느끼고 찾을 수 있도록 도서관에 힘을 실어주세요.



입금계좌 : 농협중앙회 948-01-090555 예금주 부산대학교



둘째, 도서관 장서확충을 위한 자료기증

1인 1책 기증

작은 정성이 하나하나 모여 큰 기쁨이 되듯,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한권의 책은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꿈과 희망과 이상이 됩니다.

개인 소장자료 기증

교수님 또는 일반인이 소장하고 있는 개인장서를 기증해주시면 도서관 학술정보를 축적하여 나만의 소중한 자료에서 모두의 자산으로 바꾸어 드립니다.

발간자료 기증

대학 내 기관(연구소)에서 발간되는 간행물을 도서관으로 보내주시면 우리 대학 간행물로 등록하여 구성원 모두가 이용하고, 국내·외 대학도서관간 상호 자료 교환으로 우리의 지식정보를 대외적으로 알립니다.

셋째, 자원봉사를 통한 재능기부

자료배열, 이용안내 등의 업무지원

나눔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도 포함됩니다. 반납된 책을 서가 제자리에 배열하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손길이 도서관을 함께 누리고 꾸며가는 밑거름이 됩니다. 당신의 열정을 기다립니다.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지원

여러분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재능기부입니다.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독서모임, 저자와의 만남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할 수도 있고,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재능을 가지고 계신가요? 당신의 숨은 재능을 도서관에 기부해주세요.

참여문의 : 기획전산팀 박지영 051-510-1820
자료기증 : 자료개발팀 김명숙 051-510-7600